



지난 2003년 서울국제도서전 전경. 올해는 1개 홀만을 썼던 지난해와는 달리 코엑스 태평양홀과 인도양홀 등 2개 홀을 전시관으로 확대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2004 서울국제도서전이 개최 한 달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국제도서전으로 거듭나려는 체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 도서전은 지난해 관람인원이 18만 5,000명에 달한 것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국내의 출판관계자들과 독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1개 홀을 전시관으로 사용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태평양홀과 인도양홀 등을 전시관으로 확대해 규모를 넓힌 것뿐 아니라 콘텐츠면에서도 출판계의 관심을 유도할 만한 기획전들이 다채롭게 준비돼 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선정과 관련해 마련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및 2005 주빈국 홍보관'부터 2004 제1회 서울세계북아트전, 볼로냐 라가치 상 수상작 특별전시 등 풍성한 콘텐츠로 손님맛을 채비를 하고 있는 2004 서울국제도서전을 미리 둘러본다.

## 공간 확대와 다채로운 행사 마련해

## '대국민 문화 페스티벌' 로 발돋움

### 기본전시

#### 단행본관, 아동·교육도서 전문관

2004 서울국제도서전은 규모를 확대하면서 기본전시 중 국내출판물을 소개할 전시관을 두 섹션으로 분리한다. 단행본관, 아동·교육도서 전문관으로 나뉘 각 출판사들의 출판물을 소개할 이 전시관은 출판사마다 자사의 출판경향과 특성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독립전시관 형태로 운영될 예정. 이를 통해 독자들은 각 출판사의 경향과 도서정보를, 출판사측은 독자반응 분석과 새로운 출판방안 모색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국제관

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1,365건의 저작권 상담이 진행됐다. 해가 갈수록 상담횟수가 늘어가는 점을 반영해 올해의 국제관은 지난해에 비해 만만 한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국제관은 출판물 교역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인데 특히 통역이 가능한 전문통역요원이 상주해 상담을 원하는 국내외 출판관계자들의 만남을 주선, 출판상담과 계약이 원활히 이

루어지는 데 최선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우리사 대표 출판물전

기본전시관에서는 '우리사 대표 출판물전'을 마련한다. 이 전시는 이번 도서전에 개별적으로 참가하지 못한 국내 출판사의 대표도서들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전시. 여기 소개될 도서는 하위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도서와 아동·교육도서로 나뉘 전시된다. 주최측은 청소년 선정도서,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자사 신문·광고 도서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진열해 독자들에게 책을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 특별전시

특별전시로는 각국의 금서 변천사와 그 사회적 의미를 되짚는 작업의 일환으로 금서 관련 특별전시가 준비된다. 또한 최근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 상을 수상한 《지하철은 달려온다》와 《팔죽할멈과 호랑이》를 소개하는 전시, 최

2003년 특별전시 풍경.



# 협력전시



2003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전시 풍경.

근 문화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웰빙 관련 도서들을 소개하는 전시도 기획하고 있다.

## 전자책산업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전자책 산업에 발맞춰 '2004 한국전자책산업전'도 마련한다. 올해로 3년째 개최되는 한국전자책산업전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해 있는 국내 전자책시장을 한눈에 살펴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국내 전자책 서비스업체와 기술관련업체가 대거 참가하고, 특별전시로 국내외 전자책 관련 첨단기술을 소개할 기술관 등도 마련된다. 또한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우수전자책을 전시하는 콘텐츠관, 무선인터넷을 통해 전자책을 시연하는 모바일관, 어린이용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소개하는 어린이관, 전자도서관 구축 솔루션과 사례를 소개하는 라이브러리관 등을 마련해 국내 전자책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일반인들에게 전자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북아트전

2004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책의 미학적 접근인 '북아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책의 미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1회 서울세계 북아트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에서는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까지 갖고 있는 책들을 전시해 책이 갖는 미학적 가능성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해외 우수 북아트 작품을 통해 국내 북아트 분야를 점검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첫 전시인 만큼 올해는 매우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오프닝 이벤트로는 브룩클린 북아트 그룹인 Bookly의 Marshall Weber의 1인 퍼포먼스가 준비돼 있고, John Brebner, 가가리 고타시, 김나래 등 유명 북아트 작가들의 소장품 100여 점도 전시된다. 이 밖에 북아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이 직접 책을 만들어 보는 무료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 인쇄전과 잡지전

책의 역사를 살펴볼 기회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인쇄전에서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나라 인쇄문화를 알리는 전시를 준비한다. 인쇄전에서는 고인쇄문화 시연 및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의 한 종류인 잡지산업의 성과를 둘러볼 기회도 제공된다. 잡지전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 분야의 잡지 약 1,500여 종을 전시해 우리나라 잡지산업의 성과를 되짚어볼 예정이다.

##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및 2005주빈국 홍보관

2004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가장 기대되는 특별전시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및 2005 주빈국 홍보관'이다. 이 전시는 우리나라가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 주빈국 행사의 준비과정을 공개하는 전시관으로 꾸밀 예정이다.

책 관련 박람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문화올림픽'이라 불릴 만큼 영향력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2003년 기준, 102개국에서 6,614사가 참가한 만큼 2004, 2005년에는 더 큰 참여율을 자랑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전 세계 우수한 출판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이니 만큼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줘야 할 주빈국의 역할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조직위원회는 이 뜻을 담아 부지런히 주빈국 관련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 마련될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및 2005 주빈국 홍보관을 통해 지금까지 준비된 사업들과 그 과정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은 국내도서 100권 번역출판사업부터, 도서전, 예술공연, 학술전시 등 네 분과로 나눠 소개된다.

2004 서울국제도서전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일) 측은 이번 도서전을 '대국민 문화페스티벌'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책은 물론이고 이를 둘러싼 인접문화들을 다채롭게 소개할 이번 도서전은 출판산업뿐 아니라 문화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민**

취재 김청연 기자